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조재순* · 전미경** · 이윤정***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20 Years' Activities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Cho, Jae-Soon* · Jun, Mi-Kyung** · Lee, Yoon-J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9,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has served as the premiere academic organization in the field, through the semiannual meetings, the journal, and other informal activities. The Association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organizing the members and guiding the academic community in reacting to the many challenges that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outh Korea had to encounter due to the social and curricular changes. This study reviews the past 20 years' activities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in order to illuminate its accomplishments in terms of academic and non-academic activities.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was conducted, followed by thorough analyses of the semiannual meetings, informal activities, and the journal. The article is also discussing future tasks that the Association would need to pay attention to and thrive to accomplish in order to continue serving its role of guiding the academic community.

Key Words: 한국가정과교육학회(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년의 가정과교육학회의 활동(20 Years' Activities of KHEEA), 가정과교육학회의 성과와 과제(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of KHEEA).

1) 교신저자: Jun, Mi-Kyung,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6, Pil-dong 3-ga, Chung-gu, Seoul, 100-715,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0 E-mail: preba@chol.com

2) 이 논문은 2009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이 발전된 것이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가정학의 역사는 우리나라 여학교의 시작과 함께한다. 1886년 스크랜턴(Scranton, M.F) 부인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로, 초기에는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점차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되었다. 가정(家政)과 관련된 최초의 교과목인 가사(재봉과 자수) 과목은 학교가 창립된 지 10년이 지난 1896년에 개설되었다. 가사 교과목 개설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가사 교과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과목을 가르칠 담당교사나 시설 부족 등과 관련 있다. 당시에는 일정한 교육과정 아래 교과목이 증설된 것이 아니어서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없거나, 혹은 시설이 부족한 교과목은 현실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여학교 학제가 안정되면서 여성 교육에서 가정교과목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행정당국인 학무국에서는 1895년 소학교령을 통해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첨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소학교에서의 가정교육은 재봉교과에서 출발했다. 또 중등 여학교의 경우는 1903년 4년제 중학교로 인가받은 정신여학교가 가정교과 ‘가사’, ‘침공’, ‘침선’을 두었고, 1904년 이화학당 역시 4년제 중학교로 인가받아 가정교과 ‘생리’와 ‘재봉’을 두었다. 식민지기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한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에서도 가정(家政)교과목은 여학생의 주요 교과목이었다(정덕희, 1993; 전미경, 2004, 2005).

100여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진 가정교과는 가정교과의 모학문인 가정학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사실 우리나라 초기 가정학 활동은 가정교과와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대한가정학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한가정학회는 1947년 5월에 창립되었다. 초대 학회장이자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인 조기홍 선생은 『대한가정학회 50년사』에서 학회 창립 시기에 중고교 교사가 학회의 주요한 회원이었으며, 중고교 교사의 자질향상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학회의 주요 활동으로 “가정과 교사의 재교육 및 강습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은 “정계에서 좌익·우익이 갈라져 싸우든 말든 단합”하면서 가정교과서를 만들면서 기뻐했다고 창간 당시를 추억하고 있다. 또 선생은 대한가정학회가 “문교부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사회발전과 조화시켜 개정, 보완”하는 일을 주관하여 “오늘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기반을 잡는 일에 주력하였다고 했다. 1954년 3대 임원진부터 임원활동을 시작하여 16대 학회장을 역임한 중앙대학교의 윤서석 선생은 대한가정학회 창립 초기에는 “‘가정’ 교과교육을 통해서 가정학의 목적이 신속하게 확산”되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때는 여러분의 가정학자가 중등교육의 책임자로서 또는 문교부의 장학관·편수관으로서 가정학을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서 선두에 서게 했던 때”라고 말했다. 이처럼 초기 가정교과 활동은 가정학자와 가정학자의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가정학회의 주요 활동을 차지하고 있었다(대한가정학회, 1997). 그러나 이후 대한가정학회를 구성하는 학문연구영역이 전문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영역별로 전공학회가 창립되면서 ‘가정교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88년 국립대 가정교육과학과장 회의에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설립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한 결과, 1989년 충남대학교에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총회를 갖게 된다. 가정교육의 연구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전문 지식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2009년 현재 2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공주사범대학 주정숙 초대 회장과 임원진을 대표로 출발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현재 11대 임원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로 발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발자취를 살펴 보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우리 학회의 당면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학회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큰 도전적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부터 가정교과는 교과명이 변하고, 주당 수업시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가정교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창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회의 변화는 가정과교육과 우리 학회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현재 가정 교과는 가족기능의 변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의 변화, 가정과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의 필요, 일과 가정의 양립, 청소년의 문제, 다양한 가족문제의 출현, 지역공동체 약화, 환경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현실이 필요로 하는 가정교과의 역할과 활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여 년간 이룩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활동을 되돌아보 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989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이후 20여 년간의 학회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가정과교육의 환경변화는 가정과교육과 관련된 교육정책 변화, 양성기관의 변화, 교육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와 특별활동을 추적함으로써 학회의 연구 및 대외적 활동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창립 이후 발행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를 분석한다.

3. 연구 방법

연구내용에 따라 자료수집 절차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육의 환경변화 중 가정과교육관련 정책변화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해설서, 교사 자격표시기준 등을 참고했다. 또 양성기관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 밖에 최근 임용고사 합격자 관련 자료 등은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했다.

둘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와 특별활동은 학회가 발행한 학술대회 자료집, 포럼·심포지엄 자료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밖에 학회 내부 자료를 참조하였다.

셋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분석은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창간호부터 2009년 3월에 발행된 21권 1호까지 총 51권을, 게재 논문의 수량, 연구주제, 저자 구성,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비 수혜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가정과교육의 환경변화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창립된 1989년 즈음부터 현재까지, 가정과교육에 영향을 끼친 환경변화를 교육정책, 양성기관, 교육현장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과교육관련 정책변화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창립되기 이전에는 가정과교육관련 활동이 대한가정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한가정학회는 초창기부터 중등학교에서의 가정과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 관련정부기관에 가정과교육의 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수차례 전달하면서 가정과교육과정 개편에 가정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창립된 1989년은 제5차 교육과정

이 시행된 시기로, 지난 20년 동안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을 거쳤다. 2010년부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향후 새롭게 개발된 교과서가 사용될 예정이다. 2009년 올해는 미래형 교육과정(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교과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명, 과목명, 이수시간, 남녀이수구분여부 등이 바뀌었다. 교과명은 '실업·가정'에서 '기술·산업', '가정'을 거쳐 '기술·가정'이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과목명은 중학교 1, 2학년은 '기술', '가정', '기술·가정' 중에서 과목을 선택해야 했으며, 3학년은 '가사', 고등학교는 '가정', '가사'였다. 중학교 1, 2학년 여학생들은 주로 '가정'을 선택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과목명은, 중학교는 '가정', '가사'가 합쳐진 '가정'이었고 고등학교는 여전히 '가정', '가사'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명과 교과명이 일치하여 '기술·가정'이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하는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속하게 되었다. 또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보통교과 선택과목으로 '가정과 학'이 있다.

이수시간은 교육과정개정 때마다 축소되었다. 특히 제5차에서 제6차 교육과정으로 바뀔 때 크게 감소하였다. 이 때는 '가정' 이수시간이 거의 1/3 정도로 대폭 줄어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반면, 중학교에서 남녀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가정'과목의 남녀공통이수를 강조해 온 가정학자들의 오랜 숙원(대한가정학회, 1997)이 달성되

는 측면이 있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1학년은 남녀공통필수이며, 2, 3학년은 성별 구별 없이 기술·가정교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명과 과목명 변경, 이수시간 감소, 남녀이수구분이 변화되는 이외에 교사 양성기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1991년부터 교사 임용제도가 변경되어, 국공립대 사범대 졸업자 의무발령제 도에서 벗어나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공개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0학년도부터는 교원자격표시과목에 '기술·가정'이 도입되고, 가정교과와 내용중복이 논란되는 교사자격표시과목인 '영양'(2005년)과 '보건'(2008)이 도입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학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가정교사 양성기관의 변화

교사양성이 국립대 사범대 중심에서 국·사립대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으로 확대되면서 가정교과사 자격증 취득자가 급증하는 한편, 교육과정개정으로 인한 시수 감소로 의무발령대상자였던 국·공립대 사범대 가정교육과 졸업생이 수년을 기다려도 발령받지 못하는 미발령자 적체 상황이 나타났다.

가정교과사 양성기관인 가정교육과는 졸업생의 교사임

<표 1> 교육과정별 가정 관련 교과명과 과목명 및 시간 수

교육과정	5차 (1987~1992)	6차 (1992~1997)	7차 (1997~2008)
교과명	실업·가정	기술·산업, 가정	기술·가정
과목명 (고교)	기술, 가정, 기술·가정/ 가사 (가정, 가사)	기술·산업, 가정 (가정, 가사)	기술·가정 (기술·가정, 가정과학)
시간수 (고교)	3, 4-6, 4-6 (4-5, 4)	2, 1, 1 (4, 3)	2, 3, 3 (3, 3)
특징	기술·가정 신설(일부선택) 중학교 남녀구분 선택사제	교과명 변경 중학교 가사, 가정 통합 중학교 남녀 공통 필수	교과명 변경 기술·산업, 가정 통합 (고1 남녀 공통 필수)

용 기회감소와 발명적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확대 개편하는 추세가 일어나고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정교육과 정원 축소정책을 실시하자 가정교육과가 생활과학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가정교육과 학과 수는 1990년 25개에서 2009년 15개로 감소하였다. 또 이 연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여 얻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가정’ 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는 2,483명(연평균 878명)이며 이 가운데 사범계졸업자는 52.6%이고 비사범계 졸업자는 47.4%이다.

임용고사에서는 사범계와 비사범계 졸업자간에 차별이 없으므로 가정교사 임용합격자에도 교사양성을 주목표로 하는 가정교육과에서 양성된 예비교사뿐 아니라 비사범계 교직이수자도 있다는 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4년간 가정임용고사 합격자 총 153명 가운데 가정교육과 졸업자(43.1%)가 비사범계 교직이수자(56.9%)보다 적었다. 이러한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신규 임용된 가정교사 중에는 비사범계 교직 이수자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교사가 정회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가 가정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과 교육연구원 등이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산업’과 ‘가정’ 두 과목이 ‘기술·가정’으로 병합되면서 과목명과 동일한 표시과목의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정교육과단체와 기술교육과단체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연계 전공으로 ‘기술·가정’ 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기술가정’ 교사를 채용하는 임용공고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술·가정’ 연계전공실시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기술·가정’ 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받은 졸업생은 166명(사범계 137명, 비사범계, 29명)이며, 이 수치는 연도별 차이가 컸다(2006년 64명, 2007년 77명, 2008년 25명). 또 같은 기간 동안 ‘기술·가정’ 임용고사에 합

격한 수는 15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9.07.09)는 ‘2010년 4년제 대학 교원양성과정 승인계획(안)’에 관한 문건을 통해 교원양성 방향을 일반대학 교육과를 포함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목표는, 사범대학(일반대학 교육과 포함)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중심의 교사양성 과정으로 특성화를 유도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취득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 및 정원을 조정하고, 교직과정은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 중심의 교사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양성 방향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양성기관간의 역할이 차별화 되고 과목에 따라 과부족한 교사양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진행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안)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3. 가정교과교육현장의 변화

중등학교 가정교과교육 현장은 현실적으로 가정교과교육관련 정책변화와 가정교과교사 양성기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담당 교과명과 과목명 변경, 이수대상 학생의 남녀구분여부, 필수과목인가, 선택과목인가와 같은 일련의 교육과정 개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가정과 담당교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 어떠한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밝혀진 바를 찾을 수 없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시간 수 감소는 현장의 가정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기술 부전공 연수를 받는 것은 물론 책임시수를 채우기 위해 개별학교 상황에 따라 상치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을 접해야하고, 타학교 순회교사를 맡기도 한다. 가정담당 교사 정원 감소로 인해 대학 때 받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연수나 교육대학원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으로 타과목 교사가 되거나, 가정교과교사 진출 후 후임을 다른 표시과목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양상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가정과목 신규교사임용은 최근 몇 년간 늘어나고 있는(2007년 85명, 2008년 122명, 2009년 140명), 상당기간 거의 없거나 매우 소수만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가정과목 담당교사의 자연스런 세대이음의 단절이 우려된다.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불거져 나오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부정적 논란은 가정과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체감 혼란과 불확실성을 갖게 하는 면이 있다.

선택과목인 ‘가정과학’(한국교육개발원, 2008)은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하는 보통교과인 과학기술과목군 가운데 ‘기술·가정’ 교과에 속한 6개 과목(‘농업과학’, ‘공업과학’, ‘기업경영’, ‘해양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가정과학’) 중 하나이다. 2008년 현재 ‘가정과학’ 과목은 ‘기술가정’ 교과 중 ‘정보사회와 컴퓨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다(<표 2>). 그러나 1, 2위 선택과목의 차이를 살펴보면, 1위인 ‘정보사회와 컴퓨터’에 비해 ‘가정과학’은 수적으로 1/6내외에 불과하다. 학생 성비에서도 ‘정보사회와 컴퓨터’는 남학생(53.6%)이 절반을 약간 넘으나 ‘가정과학’은 여학생(88.2%)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광주, 대전, 울산, 충북과 같이 ‘가정과학’을 선택한 남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여학생에 제한하여 살펴봐도 ‘가정과학’을 선택한 여학생 비율(23.0%)은 ‘정보사회와 컴퓨터’를 선택한 여학생(74.7%)의 1/3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 밖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병합된 ‘기술·가정’ 과목을 운영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팀티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과의 전문성과 교수학습의 효율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기술가정’ 교과목을 팀티칭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Ⅲ. 학술대회 및 특별활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1989년 제 1차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90년도 이후로는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가져 2009년 하계학술대회로 41회째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술대회는 창립 이래로 참석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이후에는 평균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 정기적 학술대회 외에도 학회는 학술적 발전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교육현안 및 교육 정책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제2차 대회부터 1월의 동계학술대회와 7·8월의 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월의 동계학술대회때는 정기총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의 형식은 제1차 대회 때부터 주어진 학술대회의 주제에 따른 기조강연과 주제 관련 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체로 매 회 3~10편의 구두 발표가 있었으며, 1990년도부터 1993년도(총 4회)까지 하계학술대회에는 교육자료 전시회도 가졌다. 그 밖에 2003년도 이후부터 매회 포스터 발표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매회 15~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체로 가정교과와 관련된 환경적 변화에 대한 가정과교육의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과 교육의 발전적 탐색’, ‘21세기를 향한 가정과 교육의 방향’,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가정과 교육의 국가, 사회적 역할과 기대’ 등이 있다(<표 3> 참조).

<표 2> 가정 과학 선택 현황 (%)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여학생비	총 여학생비
가정과학	13.0	13.9	17.4	88.2	23.0
정보사회와 컴퓨터	80.4	78.5	71.4	46.4	74.7

그 다음으로 많았던 학술대회 주제는 교수·학습과정 또는 수업 관련 주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가정과 교수·학습의 실제’, ‘창의력 개발을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가정과 교수·학습의 혁신’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관련 주제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2년 제6차 교육과정 때와 1997~1998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즈음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다루어진 주제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는 주로 양성제도 개선시기, 예를 들어 1995년, 2008년에 맞춰 다루졌다. 2006년에는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사연수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표 4>는 학술대회 주제발표의 구두 발표자의 직위를 보여주고 있다. 발표자들의 직위를 살펴보면, 교사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수들이 32%, 행정부처 소속의 교육전문가나 교장 등의 관리직이 22%, 기타 학생, 연구원, 기자 등이 4%였다.

2. 특별활동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는 교육과정 개정 또는 교사양성제도 개정 시에 세미나, 좌담회, TF팀 회의 등을 통하여 가정교과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 및 주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예로서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세미나, 좌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기술·가정’ 교사자격증 표시과목과 관련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술·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수 및 ‘기술·가정’ 관련자 연석회의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포럼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와 토론회에 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8년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탁을 받아 가정과목의 교사자격기준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토론회에서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2003년과 2008년에는 각각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활동을 통하여 가정교과

〈표 3〉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의 학술대회 주제 동향

주제	빈도
환경적 변화와 가정교과교육 일반	14
교수·학습과정 또는 수업관련	11
교육과정 관련	6
교사 전문성 또는 양성제도 관련	3
특정 주제 (환경, 영양, 직업교육 등)	5

〈표 4〉 학술대회 주제발표 발표자 직위¹⁾

발표자 직위	빈도
대학 교수	33
교사	42
교육전문가 (행정부처 또는 관리직)	22
기타 (학생, 연구원, 기자 등)	4
합계	101

1) 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대회 자료집 중 누락된 것이 많아, 여기서는 총 40회 중 28회의 발표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직업교육관련학회와 매년 공동학술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학술대회 외에도 토론회, 포럼, 초청 특강 등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현안과 관련

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토론 및 발표를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표 5>에 이러한 활동의 내용이 시기별로 요약되어 있다.

<표 5>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특별활동 내용

1991년	제6차 중등교육과정 개정시안 세미나 주제: 가정과교육과정 개정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2년	좌담회 주제: 제6차 교육과정 방향에 관한 논의
2001년	교원자격검정령 기술·가정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 1: ‘기술·가정’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개정령 경과 발표 2: ‘기술·가정’ 교사자격 시행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01년	전국 가정교육과 교수 및 기술·가정 관련자 연석회의 안건: 기술·가정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대책 마련, 기술·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에 대한 대책 마련
2003년도	영양교사신설제도 반대 대책 활동 전개(2003년 9월~12월) 활동내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정 기획과) 공문발송,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교육관련 국회의원들과 개별면담, 정부종합청사에서 영양교사 신설 반대 시위, 대책위원회 구성: 전국 각 대학 가정교육과 별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2003년	영양교사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가교련 주관, 가정과교육학회 공동 주최) 내용: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 발대식
2003년	기술·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주제: 기술·가정의 분리, 독립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2003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세미나 주제: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2004년	중등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전국 공청회 (기교련, 기술교육학회, 가교련과 공동주최) 주제: 중등기술·가정교과 왜 분리·독립·필수 인가?
2005년	가정교과목 교육과정을 위한 TF팀 회의(제1차~제4차) 안건: 가정과교육과정 특별위원회(TF팀) 구성에 관한 사항; 가정과 교육목표·핵심역량·기본역량 등에 대한 토의; 교과과정의 영역 및 대단원·중단원명 조정 및 논의
2005년	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평가원 개최 토론회 (제1차~제3차) 참여 주제: 기술, 가정과의 가정영역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과정체제와 교과서 형태; 가정과 교육내용 증복에 대한 문제
2005년도	학술포럼: 21세기 가정과교육 포럼 (제1차~제5차) 주제: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 패러다임, 대안적 모형 탐색 가정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의 입장; 미국 유타주 및 워싱턴주 가정과교육의 동향; 비판적 사고와 가정과 교육; 가족생활중심의 식, 의, 주 통합 교육과정; 직업교육, 에너지 교육
2008년도	보건교사신설제도 반대 대책 활동 전개 (2008년 7월~9월) 활동내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정 기획과) 공문발송,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정부종합청사에서 보건교과목 신설 반대 기자회견, 대책위원회 구성; 전국 각 대학별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개선 연구관련 활동
2008년	표시과목가정 및 기술·가정 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공청회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탁과제 수행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안) 개정관련 활동 (2008년 11월~현재) 활동내역: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교육과정 TF팀 구성;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총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청회에 참석; 교육과학기술부 및 자문회의에 공문발송; 관련 단체들에 협조요청; 일간지에 가정과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 투고

IV.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는 1989년 창간호를 발행된 이래 2009년 3월까지 총 51권의 학회지를 발행하였다.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정교과교육에 관한 최고의 전문학술지로, 2000년에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래 2004년에는 '등재학술지'로 등급이 상향조정 되었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수차례에 걸쳐 가정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지로서 본 학회지의 발행을 지원하였다. 여기서는 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회지를 통해 선행연구의 흐름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적다. 예를 들면, 황덕순·한정미·홍은실(1995)은 창간호부터 1994년까지 발행된 대한가정학회지를 내용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① 학회지 발간 및 게재 논문의 현황, ② 논문의 연구주제, ③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및 척도의 신뢰도, ④ 연구대상, ⑤ 연구자의 직위, 소속, 참여 연구자 수, ⑥ 사용언어, 참고문헌 수, 연구비 수혜 여부 등의 영역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황덕순 외(1995)의 연구는 이후에 연구된 학회지 내용분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게재 논문의 내용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윤인경(2001; 2005)의 연구가 있다. 윤인경(2001)은 창간호부터 1998년 12월 10권 2호까지의 논문을 ① 학회지 발행 현황과 논문의 분량, ② 연구 영역별 분포와 시대별 변천, ③ 연구 유형, ④ 자료수집방법, ⑤ 자료분석 통계기법, ⑥ 연구대상자, ⑦ 논문의 체제, ⑧ 연구자의 특성, ⑨ 기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 이 연구 틀에 준하여 윤인경·이정규·김성교(2005)에서는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1999년 12권 1호~2003년 16권 4호, 127편), 대한가정학회지(1999년 37권 1호~2003년 41권 12호, 18편), 한국실과교육학회지(1999년 12권 1호~2003년 16권 4호, 86편)에 게재된 '가정교과교육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덕순 외(1995), 윤인경(2001), 윤인경 외(2005)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①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게재 논문의 수량적 분석, ② 연구주제별 수량 분석, ③ 연구저자 구성 분석, ④ 연구방법 분석, ⑤ 연구대상 분석, ⑥ 연구비 수혜 여부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게재 논문의 수량적 분석

1989년 1월 창립한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는 그해 12월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창간호부터 2009년 3월 발행까지 총 51권에 게재된 49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²⁾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는 발행을 거듭하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창간호는 년 1회 발행되었으나, 이후 1994년 6권 1호부터는 년 2회, 2000년 12권 1호부터 년 3회로, 2003년 15권 1호부터는 년 4회 발행하였다. 또 통권 51권까지 총 492편의 논문이 발행되었다.

총 51권의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에서 평균 게재 논문 수는 9.6편이다. 그러나 한 호당 게재 논문 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창간호부터 1995년까지는 매년 1회 발행하였는데, 한 호당 최소 6편에서 최대 1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평균 8.7편을 게재하였다. 또 년 2회를 발행한 1999년까지는 총 8호가 발행되었는데 한 호당 게재 논문 수는 최소 7편에서 최대 13편까지이며, 평균 게재 논문 수는 10편이다. 년 3회가 발행된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모두 9호, 79편의 논문이 발행되었고, 최소 7편에서 최대 14편까지 게재하였으며, 평균 게재 논문 수는 8.8편이다. 2003년부터는 년 4회가 발행되었으며, 2009년 3월 호까지 모두 25호 255편을 발행하였다. 한호당 최소 6편에서 17편까지 게재되었으며 평균 게재 편수는 10.2편이다. 한편 호수별 쪽수는 최소 88쪽부터 최대 272쪽까지 있으며, 호당 평균 쪽수는 145.7쪽이다.

2) 초기 학술지에는 논문 이외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도 실려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 발표문은 논문이라 보기 어려우며, 또 2002년 이후에는 학술대회 발표문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시 말해 권호당 논문 게재 수에는 학술대회 발표문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호수별 논문의 총 분량(쪽수)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문이나 학회소식이나 편집규정 등도 제외하였다.

〈표 6〉 권호별 논문게재 수 및 분량 (단위: 편)

NO	발행 연도	권호	권호당 게재 논문수	권호당 분량	NO	발행 연도	권호	권호당 게재 논문수	권호당 분량
1	1989	1권 1호	7	99	27	2003	15권 1호	7	94
2	1990	2권 1호	6	110	28		15권 2호	7	120
3	1991	3권 1호	10	146	29		15권 3호	7	103
4	1992	4권 1호	7	103	30		15권 4호	11	174
5	1993	5권 1호	11	152	31	2004	16권 1호	6	91
6	1994	6권 1호	6	92	32		16권 2호	7	97
7		6권 2호	11	103	33		16권 3호	9	161
8	1995	7권 1호	11	148	34		16권 4호	12	176
9		7권 2호	9	124	35	2005	17권 1호	8	151
10	1996	8권 1호	7	104	36		17권 2호	17	272
11		8권 2호	9	134	37		17권 3호	9	138
12	1997	9권 1호	12	178	38		17권 4호	10	173
13		9권 2호	11	174	39	2006	18권 1호	9	139
14	1998	10권 1호	12	183	40		18권 2호	11	162
15		10권 2호	13	183	41		18권 3호	10	173
16	1999	11권 1호	7	102	42		18권 4호	14	216
17		11권 2호	9	123	43	2007	19권 1호	10	162
18	2000	12권 1호	8	108	44		19권 2호	12	104
19		12권 2호	8	122	45		19권 3호	11	183
20		12권 3호	14	194	46		19권 4호	16	271
21	2001	13권 1호	7	106	47	2008	20권 1호	8	152
22		13권 2호	9	111	48		20권 2호	6	94
23		13권 3호	12	175	49		20권 3호	14	258
24	2002	14권 1호	7	102	50		20권 4호	15	252
25		14권 2호	7	95	51	2009	21권 1호	9	154
26		14권 3호	7	88					

* 논문 수 합계: 492편 / 쪽 수 합계: 7,429쪽

2. 연구 영역별 분석

다음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영역은 크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분류가능한데, 전체 492편의 논문 중 교과내용학이 160편으로 32.5%를 차지하며, 교과교육학이 332편으로 67.5%를 차지한다. 교과교육학은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가 161편이 있었고, “노인교육 수업 자료 개발”이나 “소비자교육의 교수학습자료개발”과 같이 교과내용의 교과교육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171편 있었다(<표 7> 참조).

먼저 교과내용학 연구를 살펴보자. 교과내용학 연구는 의, 식, 주, 가정관리·소비자, 아동·가족,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빈도별로 알아보면 의생활에 관한 연구가 23편(4.7%), 식생활에 관한 연구가 40편(8.1%), 주생활에 관한 연구가 4편(0.8%), 가정관리·소비자에 관한 연구가 19편(0.8%), 아동·가족에 관한 연구가 64편(13.0%), 기타에 해당하는 연구가 10편(2.0%)이 있다. 각 영역별 대표적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생활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복 만들기, 의복 관리,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교복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었고, 학교에서의 복장규제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 식생활에 관한 연구는 교과내용학 연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식습관과 식행동, 식생활 관리, 식품구매,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식품안전성 등이 있었고, 청소년의 주된 관심사인 급

식, 비만 및 체중관리에 관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 주생활에 관한 연구는 빈도가 낮으나 교과내용학과의 접목을 시도한 연구가 많다. 주생활 교과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주거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나 이들의 근린여가시설 등이 있다.
- 가정관리·소비자에 관한 연구는 모두 19편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구매행동, 금전관리, 소비성향, 자원관리, 소비자행동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 아동·가족에 관한 연구는 전체 교과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총 64편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자아개념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즉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등을 독립, 종속변수로 하여 친구관계나 의사소통, 갈등 등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또 성교육, 성폭력, 이성교제 등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연구와 부모됨, 가족건강성,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 가치관, 생활만족도, 갈등, 의사소통 등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
- 기타에는 “청소년의 소비의식과 의복구매행동”과 같이 교과내용에서 2가지 주제가 모두 해당하는 논문이 포함된다. 모두 10편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이 통합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가정학회지와 같이 가정학 전반을 다루는 학회지나, 교과내용학 세부분야를 다루는 학회지와 달리, 의, 식, 주, 가정관리·소비자, 아동·가족 등 교과내용학에의 교과교육학적 접근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발행의 주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교과교육학과 함께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이 통합된

<표 7> 연구 영역별 분포

(단위: 편)

영역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합계
	의	식	주	가정관리 · 소비자	아동· 가족	기타	교과교육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빈도	23 (4.7%)	40 (8.1%)	4 (0.8%)	19 (3.9%)	64 (13.0%)	10 (2.0%)	161 (32.7%)	171 (34.8%)	492 (100%)
	160(32.5%)						332(67.5%)		

〈표 8〉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이 통합된 연구의 주제별 분류

(단위: 편)

영역	의	식	주	가정관리·소비자	아동·가족	합계
빈도	42 (24.6%)	38 (22.2%)	30 (17.5%)	22 (12.9%)	39 (22.8%)	171 (100%)

연구는 모두 332편으로 전체의 67.5%에 해당한다. 이를 교과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회지에서 주생활에 관한 내용은 전체 논문 492편중에서 34편(4.7%)에 불과하여 영역별로 보았을 때 가장 빈도수가 낮았다. 그러나 34편 중 30편(88.2%)의 연구가 교과교육학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또 의생활에 관한 연구도 교과교육학과의 연계를 시도한 논문이 많았다. 의생활 연구는 모두 65편으로, 이 가운데 의생활에 국한된 연구가 23편(35.4%)이고, 교과교육학이 접목된 연구가 42(64.6%)편이다. 반면 아동·가족학 분야는 게재된 논문 중에서 그 빈도가 가장 많아 모두 103편에 해당하지만, 교과교육학에의 접목을 시도한 연구는 37.9%에 불과하다.

각 영역별로 교과교육학에의 접목을 시도한 연구의 하위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의, 식, 주, 가정관리·소비자, 아동·가족의 하위 영역별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교육과정별 교과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외국과의 교육내용 비교 연구,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새로운 학습모형의 개발,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의 수업만족도, 선호도, 요구도에 관한 연구,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심화과정까지 영역별 교육내용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특히 각 영역별로 교수학습 모형 및 방법 그리고 교재 연구에 관한 연구는 학회지 발간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시된 주제였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이면서 연구결과를 즉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의, 식, 주, 가정관리·소비자, 아동·가족의 교과내용학

이 교과교육학과 통합하여 접근한 연구는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회지 발행이 계속되면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접목을 시도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향후에도 교과내용의 전문성이 교육현장과 접목되어 교육현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자 구성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크게 대학에 소속된 교수, 강사, 박사, 교육대학원 학생과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사, 기타 가정학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회가 창간된 이래 가정교육학과는 축소하였으나 교수와 교사의 연구 활동은 크게 활발해졌다. 무엇보다 교육대학원의 증설과 함께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증설에 따라 가정교육 관련 연구자와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분석 논문의 연구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92편의 연구 중에서 단독논문이 112편(22.8%), 2인의 공동연구가 311편(63.2%), 3인의 공동연구가 47편(9.6%)으로, 연구자가 3명 이하로 구성된 연구가 전체의 95.6%이다.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는 22편(4.4%)이 있다. 또 7인 이상 구성된 연구는 7편이었는데 대부분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표 9〉 연구자의 수에 따른 분류

(단위: 편)

구성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9인	합계
빈도	112 (22.8%)	311 (63.2%)	47 (9.6%)	8 (1.6%)	4 (0.8%)	3 (0.6%)	6 (1.2%)	1 (0.2%)	492 (100%)

한편, 3인 이하로 구성된 연구의 연구자 직위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³⁾ 먼저 1인으로 구성된 경우 전체 112편의 논문 중 교수에 의한 연구가 74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사, 교사에 의한 연구가 있었다. 2인으로 구성된 연구는 311편으로 전체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교사와 교수가 의한 공동연구가 153편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생과 교수의 공동연구가 109편으로 34.9%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3인으로 구성된 연구가 47편 있었다.

전체 연구에서 교사와 교수가 함께 연구한 공동 연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 교사의 참여로 인해 교육현장의 요구나 적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현장과 긴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대상 및 분석대상

다음으로 492편의 연구 중 연구대상이나 분석대상이 명료한 경우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492편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이나 분석대상이 명료한 경우는 모두 435편이었다.⁴⁾

435편의 연구물의 연구대상은 크게 학생, 교사, 교과서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대상을 빈도별로 알아보면, 중학생이 166편으로 435편의 연구물 중 38.2%를 차지하며, 고등학생은 114편으로 전체의 26.2%이다. 또 가정과 교사를 비롯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96편이고, 가정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도 40편이 있다. 그 밖에 기타의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학부모, 신문기사, 식품 등이 있었다.

가정과 교육에서 가정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은 매우 중요하고, 연구자의 상당수가 중등학교와 대학교에 재직된 교사와 교수라고 볼 때, 연구대상이 중고등

<표 10> 연구자 직위에 따른 구성

(단위: 명)

저자인원	구성	명(%)	저자인원	구성	명(%)	저자인원	구성	명(%)
1인	교수	74(66.1%)	2인	교사·교수	153(49.9%)	3인	교수·교수·교사	15(32.0%)
	교사	12(10.7%)		학생·교수	109(34.9%)		교수·교사·학생	8(17.0%)
	강사	17(15.2%)		교수·교수	18(5.7%)		교수·교사·교사	4(8.5%)
	연구원	5(4.5%)		교수·강사	18(5.7%)		교수·교수·학생	4(8.5%)
	학생	3(2.7%)		교수·연구원	7(2.2%)		기타	16(34.0%)
	기타	1(0.8%)		기타	7(2.2%)		합계	47(100%)
	합계	112(100%)		합계	312(100%)			

<표 11> 연구대상과 분석대상의 구성

(단위: 편)

연구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교과서	기타
빈도	25	166	114	13	96	40	38

3)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는 연구자의 소속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직위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교수의 경우 전국의 가정교육과가 많지 않아서 이름만으로도 교수여부는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소속대학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인지, 강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여기서는 강사라고 밝히는 경우에는 강사로 구분하였고, 소속이 교육대학원인 경우에는 학생으로 분류하였다. 또 소속이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사로 분류하였다.

4) 한 연구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면 중복하여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수록된 적이 않은 연구가 연구대상이나 분석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가정과 교육 철학이나 역사, 또는 수업모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이나 분석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표 12〉 연구방법

(단위: 편)

연구방법	조사연구	실험연구	내용분석	문헌분석	사례연구	심층면접
빈도	322	39	58	65	4	6

학생, 교사, 교과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가정교과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분석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방법 분석

선행연구(황덕순 외, 1995; 윤인경, 2001;2005)를 참조하여 연구방법을 조사연구, 실험연구, 내용분석, 문헌분석, 사례연구, 심층면접, 기타로 나누어 그 빈도를 알아보았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연구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로, 총 322편에 해당한다. 또 교과서, 교육과정, 학회지 등 분석텍스트가 문헌인 경우가 많아 내용분석법과 문헌분석법이 적용된 경우도 각각 58편과 65편이다. 또 수업지도안의 적용, 효과검증 등은 대개 실험연구를 통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하는데, 이와 같은 연구를 포함하여 실험연구가 채택된 연구는 모두 39편이다. 그 밖에 사례연구 4편, 심층면접이 6편 있었다. 그 밖에 기타로는 담론분석, Q방법 등이 있었다(<표 12> 참조).

이와 같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실린 연구방법은 조

사연구, 내용분석, 문헌분석,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는 조사연구는 본 연구가 분석한 총 492편의 연구 중에서 65.4%에 달할 정도로 많다. 가정과교육학회지의 연구방법의 대부분이 조사연구, 내용분석, 문헌분석, 실험연구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다(윤인경, 2001; 2005). 또 이러한 문제제기는 가정과교육학회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연구방법의 다양성은 각 연구의 연구주제, 분석대상 등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연구방법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6. 연구비 수혜 실적

각 연구의 연구비 수혜 실적을 조사하였다. 전체 연구에서 연구비 수혜를 받은 경우는 43편으로 이들 대부분은 교내 연구비를 수혜하였고, 교외 연구비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연구비를 수혜 받은 외부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있었다.

〈표 13〉 연구비 수혜 여부

(단위: 편)

연구비 수혜	없음	있음		합계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빈도 (%)	450 (94.5)	42 (8.5)		492 (100)
		31 (6.3)	11 (2.2)	

5) 교수자료의 개발 등과 같이 연구방법을 명료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여 분석하였고, 한 연구에서 내용분석과 조사연구의 연구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였다면 중복하여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V. 결 론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발자취를 살펴 보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우리 학회의 당면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외부의 다양하고 도전적인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가정교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가정과교육 분야의 전문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학회는 학술대회와 특별활동, 학술지의 편찬을 통하여 학계의 교수, 교사, 전문가, 연구인력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가정과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되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가정교과와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미래의 과제들을 가정과교육관련 환경변화 관련 과제, 학술대회 및 특별활동 관련 과제, 학술지 관련 과제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과교육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는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끊임없이 불리하게 변화하는 가정과교육환경에 장기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육관련단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간 역할을 분담하고, 일치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기관에 강력하게 반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교육과정 총론 개발에 반영할 가정교과의 의견을 합의하고, 합의된 의견을 대표하는 과정에 대한 공유된 공인이 있어야 자칫 의견 분열로 비치는 것을 막고 의견을 반영하는데 기울이는 노력도 줄일 수 있겠다. 조직체계는 전국시도가정과교과연구회,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연합체인 한국가정교육과단체총연합회가 대외적인 대표기구 역할을 하고, 기금을 관리하고, 산하단체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연합회 구성원이 동시에 학회의 회원이며 실제 학회가 전국적인 임원조직을 갖고 정기적인 전국 규모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체회원의 인적 네트워크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총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

둘째, 가정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교육수요자로부터 꼭 배워야 하는 유익한 교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총론연구팀은 필수과목수와 이수과목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의 교과목 필요도를 조사한 것을 자료로 활용한다. 우리 내부에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육과정전문가, 일반인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 단체는 물론 가정과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교사 개개인이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의식적인 인식확산 노력이 매우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셋째, 현장에서 가정과교사의 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 힘써야 하겠다. 고등학교에서 가정과학이 선택되는 과정이나, 기술·가정 담당자를 기술교사나 가정교사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상황일 때 가정과교사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평소 교과교육과 학교현장업무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연수·대학원·현장연구 등을 통해 가정교과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쇄신하고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하며, 가정과교육학회와 교과연구회 등에 가입하여 적극 활동함은 물론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신규 임용된 가정과교사의 양성기관이 다양화됨에 따라 학회는 대상 학과를 가정교육과에서 나아가 생활과학 관련 교직양성기관과 교육대학원 가정전공으로 확대하여 회원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대회 및 특별활동과 관련되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주제는 비교적 적게 다루어졌다. 교과 내용의 전달하는 일선에 있는 현장교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는 앞으로의 가정교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요소이다.

둘째, 가정과교육학회가 지금까지는 교사, 교수, 교육전

문가 등의 다양한 위치의 회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수렴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학회 내에서 분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보다 세분화,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도 영역별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별활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난 20년간 학회는 가정과와 관련되는 중요한 환경적 변화가 있을 때 회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활동이 필요하다. 즉,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가정과교육을 발전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관련한 과제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창간 이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였다. 향후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영역을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으로 분류할 경우 교과교육학이 교과내용학보다 약 2배 많았다. 전체적으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접목을 시도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영역별로 살펴볼 때, 교수학습 모형 및 방법 그리고 교재 연구에 관한 연구는 학회지 발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시된 주제였으며, 이 연구주제는 가정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교과내용의 전문성이 교육현장과 접목되어 교육현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자의 구성을 볼 때, 2인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독 연구였다. 2인 연구의 경우는 교사와 교수의 공동연구, 학생과 교수의 공동연구가 많았다. 연구자 구성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교사와 교수가 함께 연구한 공동 연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교사의 참여로 인해 연구내용에 교육현장의 요구나 적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교육현장과 긴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은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다. 또

교사와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았다. 본 학회의 초점이 가정교과에 맞추어져 있고, 또 연구자의 상당수가 교사와 교수라고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가정교과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분석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연구방법은 조사연구, 내용분석, 문헌분석, 실험연구가 주로 많았다. 특히 조사연구에 의한 연구가 65.4%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앞으로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분석대상이나 연구대상을 찾을 수 있고, 연구주제, 분석대상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연구비 수혜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그 대부분도 교내 연구비였다. 교내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교수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연구비를 수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리라 여겨진다. 반면 교외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는 극히 적었다. 연구비의 수혜는 새로운 연구주제 및 연구대상과의 접근,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 연구대상자 크기의 확장,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변수로 한 연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교육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연구비 수혜를 통해 타 학문이나 기관에 가정교육 전공자들의 연구활동의 적극성과 연구결과를 홍보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향후에는 교외 연구비를 수혜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가정교과는 다각적으로 변화해 가는 사회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들을 다루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과는 새로운 사회적 현실이 요구하는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회 창립 2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우리 학회가 보다 진취적인 비전을 계획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 연구의 제안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2009.07.09). **2010년 4년제 대학 교원양성과정 승인계획(안)**-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직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대한가정학회(1997). **대한가정학회 50년사**. 학지사.

대한가정학회(2002). **가정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대한가정학회.

윤인경(2001). 한국가정과교육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13(2), 73-83.

윤인경·이정규·김성교(2005). 한국가정과교육 연구논문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55-71.

전미경(2004).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16(3), 1-25.

전미경(2005). 1900-1910년대 家政 教科書에 관한 연구: 현공림 발행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訂家政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1), 135-155.

정덕희(1993). 구한말 개화기부터 8·15광복까지의 가정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d.kedi.re.kr/index.jsp>

황덕순·한경미·홍은실(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분석: 1959~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3(3), 17-30.

<국문요약>

1989년에 창립된 이래,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및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이 분야의 주요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적 환경 및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과교육이 맞게 된 다양한 도전과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회는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학술공동체를 이끄는 노력을 해 왔다.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활동을 검토해 봄으로써 학회가 이루어 온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가정과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과, 지금까지의 학술대회 및 특별활동,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회가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09년 9월 4일, 논문심사일자: 2009년 9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9월 17일